

▶ 달러/원 주간 전망

• 박스권 고수하는 환율..달러·분기말 수급 눈치보기

서울, 9월2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와 수급 눈치를 보면서 기존 박스권 안에서 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25-1345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과감한 '빅컷' 이후 전반적으로 리스크 온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한대로 정책 실기가 아닌 선제적인 정책 대응 측면에서 50bp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대해 시장이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이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차단되면서 투자심리는 지지받지만, 채권금리와 달러의 방향성은 다소 흐릿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경기 진행 경로를 두고 시장은 주요 경제지표를 더 확인해야하는 작업이 필요해졌다.

이번 주는 S&P글로벌 9월 제조업·서비스업, 8월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주택 관련 지표 등이 대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월 의장을 비롯해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집중돼있어 지난 연준 회의 금리 결정과 함께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있는데 이는 반도체 업황 진단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한 중요 이벤트로 꼽힌다. 지난달부터 국내 반도체 주식을 줄기차게 매도 중인 외국인투자자 동향을 고려할 때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재료다.

분기말이 가까워지면서 역내 수급 변화가 있을지 챙길 필요가 있다. 약달러에 대한 힘이 조금 떨어진 터라 달러/원은 당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수급주체들도 아직은 이러한 환율 움직임을 염두에 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정된 대외 재료나 수급 분위기를 볼 때 환율의 단기 박스권 이탈 가능성은 낮게 보이지만, 최근 강세 시도에 나서는 위안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열어둬야할 듯하다.

▶ 주간 세계 이슈

스위스와 스웨덴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글로벌 기업 활동 설문 조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여당은 총리가 될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고, 스리랑카는 대통령을 뽑는다.

○ 금리 인하 선두주자

스웨덴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2024년 금리 인하 레이스의 다음 주자로 나선다.

시장참여자들은 두 중앙은행이 각각 수요일과 목요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선제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5년에는 상대적으로 정책 완화가 적을 수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3월 주요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시장은 목요일 금리 인하 규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전망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프랑은 2015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해있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은 당장의 프랑 강세를 원하지 않는다.

한편, 스웨덴 중앙은행은 수요일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훨씬 밑돌고 있어 11월 50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 인플레이션 지표

9월27일 발표 예정인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이 경기를 냉각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제약적인 통화정책에서 마침내 발을 뺀 상황에서 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비 2.5%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은 올해 연말 2.3%, 2025년 말 2.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자들은 소비자 신뢰와 내구재에 대한 새로운 수치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 침체 시계

월요일부터 발표되는 경제활동 지표(잠정)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최신 동향을 제공할 것이다.

유로지역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개월, 영국은 10개월째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의 0.5%p 금리 인하가 미국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약 30%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올 한 해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다.

독일은 8월 PMI가 50을 밑돌며 경기 위축 영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고 체감 경기도 약세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도 다른 나라에 타격을 줄 것이다.

German business activity lagged its global peers in August too

German business activity contracted for second consecutive month in August even as other global economies expanded.

Composite Flash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across major economies **Expansion > 50 > Contraction**

Date	Sep. 2023	Oct.	Nov.	Dec.	Jan. 2024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Australia	50	47	46	47	48	52	52	54	53	51	50	51.4
Eurozone	47	47	47	47	48	49	50	51	52	51	50	51.2
France	44	45	45	44	44	48	48	50	49	48	50	52.7
Germany	46	46	47	47	47	46	47	51	52	51	49	48.5
UK	47	49	50	52	53	53	53	54	53	52	53	53.4
US	50	51	51	51	52	51	52	51	54	55	55	54.1
Japan	52	50	50	50	51	50	52	53	52	50	53	53.0

Note: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is an index compil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monthly survey of purchasing managers in enterprises and shows whether market conditions are expanding, staying the same, or contracting.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Sep. 19, 2024 | By Vineet Sachdev

○ 일본 총리 선거

일본 여당은 9월27일에 새로운 지도자, 더 나아가 새로운 총리를 선출한다. 9명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책적 견해가 매우 다른 세 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사나에 다카이치 후보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너무 빨리 인상했다고 비난한 리플레이션론자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는 과거 통화 부양책을 비판하며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이 지금까지 금리 인상으로 "올바른 정책 궤도에 있다"고 말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총재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뿐이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연준 금리 인하 후 투자자 관심, 경제지표·대선·기업이익으로 이동

뉴욕, 9월23일 (로이터) -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미국 증시는 앞으로 몇 주간 경제지표, 정치적 불확실성, 기업 실적 등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연중 가장 변동성 큰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주 S&P500지수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20년 이후 첫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50bp 금리 인하를 발표한 후 두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9월 중 0.8% 올랐고, 올해 19% 상승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1월5일 대선까지 불안정한 시기가 이어지며 시장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존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안젤로 쿠르카파스는 "계절적으로 다소 덜 유리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새로운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험난할 수 있다"고 말

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1950년 이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9월 하반기에는 S&P500 지수가 연중 가장 약세를 보이는 두 주다.

CFRA 데이터에서는 1945년으로 거슬러 가보면 대선 기간인 10월 S&P500 지수는 평균 0.45% 하락했다.

지난 8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에드워드 존스 자료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 지수.VIX는 장기 평균이 19.2지만, 선거가 있는 10월에는 월초 평균 25까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16.4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간 접전으로 인해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상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UBS 주식 파생상품 전략가들은 메모에서 "데이터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미국 선거가 더 주목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9월23일 (일)

⊙ 관세청: 9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9월24일 (화)

⊙ 한국은행: 2024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10:00)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률 변화와 청산가능 규모 추정 (1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14:30)

⊙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 기획재정부: 1차관 AIIB 연차총회 (24~26일)

9월25일 (수)

⊙ 한국은행: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기획재정부: ADB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09: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관훈토론회 (10:00)

⊙ 기획재정부: OECD 9월 세계경제전망 (18:00)

9월26일 (목)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비통방) (09:00)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11:00)

⊙ 한국은행: 2024년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4년 10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 ⊙ 기획재정부: '24.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 ⊙ 기획재정부: 제9차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1차관 참석) (17:00)

9월27일 (금)

- ⊙ 한국은행: 2024년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한은-대한상의 공동 세미나 (13:1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13:3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S&P 연례협의단 면담 (14: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9월23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9월23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9월	45.6	45.8
9월23일	17: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잠정치	9월	52.1	52.9
9월23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8월		-0.34
9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9월	48.5	47.9
9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9월	55.3	55.7
9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SA	9월		49.8
9월24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7월		-0.1%
9월24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7월	0.4%	0.4%
9월24일	23:00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9월	103.8	103.3
9월25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9월 20일 주간		266.8
9월25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8월		1.475M
9월25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8월	0.700M	0.739M
9월26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8월	2.6%	2.3%
9월26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8월		0.5%
9월26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8월	-2.6%	9.8%
9월26일	21:30	미국	GDP 확정치	2분기	2.9%	3.0%
9월26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월 16일 주간	225k	219k
9월26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8월	0.3%	-5.5%
9월27일	08:30	일본	도쿄 CPI	9월		2.6%

9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8월		3.6%
9월27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9월		-0.62
9월27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9월	96.5	96.6
9월27일	18:00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	9월		-12.9
9월27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8월	0.4%	0.3%
9월27일	21:30	미국	소비 MM	8월	0.3%	0.5%
9월27일	21:30	미국	PCE물가지수 MM	8월	0.1%	0.2%
9월27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9월	69.3	69.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9월23일 (월)

-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시작 (24일까지)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유럽경제금융센터 세미나 화상 연설 (오후 9시)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전미 주정부 재무장관협회 연례 컨퍼런스 참석 (오후 11시15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캔자스시티 상공회의소 행사 Q&A 세션 참석 (24일 오전 2시)
- ⊙ 휴장국가: 일본

9월24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1시30분)
-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재계 지도자들과 회담 (오후 2시5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경제 전망 및 통화 정책 관련 연설 (오후 10시)

9월25일 (수)

-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경제 전망 관련 연설 (26일 오전 5시)

9월26일 (목)

- ⊙ 일본은행 7월30-31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8시50분)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보스턴 연은 워크숍에서 대담 (오후 10시10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경제 전망 및 통화 정책 관련 연설 (오후 10시15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뉴욕 연은 주최 2024년 국채시장 컨퍼런스 사전녹화 개회사 (오후 10시20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은 주최 2024년 국채시장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0시25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제 8차 ESRB 연례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0시30분)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뉴욕 연은 주최 2024년 국채시장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1시30분)
-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뉴욕 연은 주최 2024년 국채시장 컨퍼런스서 연설 (28일 오전 0시20분)
- ⊙ 닐 카시카리 연방은행 총재,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보스턴 연은 워크숍 화상 대담 (28일 오전 2시)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윤 대통령, 법적 우려에도 체코 원전 수주 완수 확신

서울, 9월19일 (로이터) -

한국은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에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월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하기 전 로이터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번 방문은 최종 계약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프로젝트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체코는 지난 7월 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투자 이니셔티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및 그 이상의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자로 수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하면서 잠재적 장애물로 떠올랐다.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 EDF도 최종 입찰에서 패한 후 체코의 결정에 항소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 분야 기업들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양측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을 하고 플젠의 원자력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 안보 관계

윤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유럽 국가 및 나토와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체코 지도자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및 경제 협력은...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체코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한다면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고수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치명적인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현희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中, 경제 회복 조치 강화하겠지만..대규모 부양책 가능성 낮아

베이징, 9월19일 (로이터)-

중국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에 맞서기 위해 수요를 늘리는데 더 집중하면서 적어도 2024년 점점 더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과 정책 자문들은 말한다.

공식 데이터에서 중국 경제가 8월에 전반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당국에 연간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이 5% 내외의 GDP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성장을 인프라 지출에 의존하면서 부채 리스크가 악화되는 등 정책 결정권자들은 복잡한 경제 환경을 헤쳐나가고 있다. 수요 부진 속에 과도한 국내 투자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이미 물가가 하락하고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책 자문은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 더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로 중국인민은행이 금리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인민은행이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기존 모기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추가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주요 프로젝트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도 주요 전략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부양책과 통화 완화의 조합에 의존할 수 있지만, 7월에 열린 공산당 주요 회의에서는 공급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을 재확인했다. 이는 소비자 수요 부진과 디플레이션 리스크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단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쉬훙차이 중국정책과학연구소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당국은 저성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강력한 부양책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중국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와 제조업에 대한 지출 확대에 의존해 왔으며, 인민은행

은 차입 비용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

◆ 위기에 처한 성장 목표

중국의 2024년 성장률 목표는 약 5%로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의 성장 둔화로 인해 여러 글로벌 증권사가 전망치를 목표치 아래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던 중국은 2022년 팬데믹으로 인해 성장률이 목표치인 약 5.5%보다 낮은 3%로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있다.

ANZ 수석 중국 전략가 상자오핑은 "추가 부양책이 시급하다"면서 "정책적 사고가 공급에서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 수요와 공공 소비에 상당한 부양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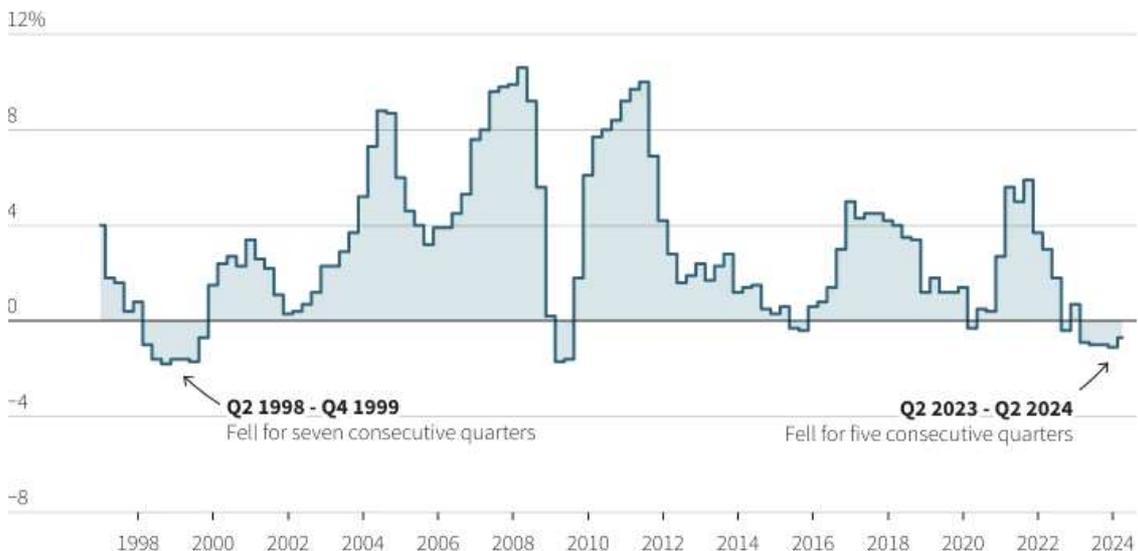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재정 확대를 통해 의료, 교육, 공공 주택과 같은 사회 보장에 대한 지출을 늘려 예방적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ANZ는 모기지 금리 인하 혜택과 주택 및 소비재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경기 부양 패키지로 GDP의 0.2%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유지하고 있다.

이달 초, 이강 전 인민은행 행장은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발언을 내놨다.

China's deflationary pressure

China's GDP deflator, the broadest measure of prices across goods and services, has fallen for five consecutive quarters — the longest deflationary streak since 1999.



Source: Reuters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 Reuters, Sept. 12, 2024 | By Kripa Jayaram and Kevin Yao

상품과 서비스 전반의 물가를 측정하는 가장 광범위한 지표인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5분기 연속 하락하며 1999년 이후 최장 기간의 디플레이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생산자 물가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소비자 물가가 부진한 가운데 7~9월에도 6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와 소득 불안 속에 소비의 급격한 회복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면 특히 지방 정부의 디레버리징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연준, 빅컷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9월19일 (로이터)-

연방준비제도는 고용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18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큰 폭인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올해 50bp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연준의 예측이 긴급한 과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완화를 시작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 반응이다.

◆ 브래드 벡텔, 뉴욕 제프리스 외환 부문 글로벌 책임자

"시장은 거의 50대 50으로 예상했고 따라서 시장의 절반은 분명히 놀랐다. 그리고 연준이 미국 경제 둔화에 직면해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 반응을 보면 지나치게 과열되지는 않았고, 이미 많은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다."

◆ 매튜 로우, 노무라캐피탈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관리 책임자

"연준의 50bp 금리 인하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은 즉각적으로 긍정적이었다가 파월 연설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면서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적인 조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벤트를 노리고 장중 주식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볼 수 없는, 연준을 두렵게 하는 점이 무엇인지 시장이 계속 궁금 해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 톰 헤인린, U.S. बैं크 선임 투자 전략가

"동전 던지기와 비슷했다. 25bp 인하가 될지, 50bp 인하가 될지 어느 쪽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꼭 놀랐다고 말하긴 어렵다. 앞으로 적어도 지금부터 연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야 할 것 같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도 노동 시장에 잠재적인 하방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고용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동 시장이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 조금 더 약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징후가 있다. 따라서 이는 실업률 상승을 막고 경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동 시장에 대한 약간의 보험 정책처럼 보인다.“

"연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노동 시장의 실업률 상승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스티브 소스닉,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 시장 전략가

"50bp 인하가 왜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해졌다.“

"시장이 겉으로 보기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도 즉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새로운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약 두 차례의 25bp 인하가 예상되지만 선물 시장은 더 큰 폭의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7일 연속 상승한 후 많은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

◆ 아담 버튼, 포렉스라이브 수석 외환 애널리스트

"파월 의장은 재임 기간 내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 왔고, 오늘도 이를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뒤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 잭슨홀에서 그는 노동 시장의 추가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고용지표가 더 둔화된다면 11월에 50bp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최근까지 시장은 미국 달러의 예외주의와 미국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믿었고 금리는 다른 나라보다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연준이 다른 G10 중앙은행만큼 빠르게,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 분명해졌다.“

"이번 결정은 대담한 조치이며 역사가 올바른 조치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며 연준이 잠시 멈추고 생각하기 전에 금리를 3%까지 낮출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마티아스 스키버,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시스템틱 에지 팀 포트폴리오 관리 글로벌 책임자

"최근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과 경제 데이터를 고려할 때 최소 25bp 인하는 널리 예상된 것이었고, 이 긴 고금리 시대가 결국 종식될 것이라는 신호로 널리 환영받는 결정이다. 우리는 연준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50bp의 큰 폭이 아닌 25bp씩 작은 폭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는 노동 시장 데이터다. 2024년에 꾸준히 증가해 온 미국 실업률은 6월에 4.1%까지 상승했다. 미국 제조업 부문의 미래 성장 지표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올해 초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연준이 미국 경제의 점진적인 둔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마지막 두 번의 회의에서 각각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연준은 인플레이션 모니터링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의 전면적인 경기 침체를 예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특히 국제적으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완화의 혜택을 받는 채권을 계속 선호한다. 또한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시장에서 메가캡 미국 기술주를 제외한 저렴한 부분의 주식도 계속 선호한다. 우리

는 주식 랠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한 안도감이 중기적으로 주가를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다가오는 미국 선거와 계속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며, 연준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피터 카달로, 스파르탄캐피탈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다.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더 관대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는 점이다.“

"연준의 움직임은 비둘기파적이었다. 연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노동 시장이 지나치게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것이 연준이 그렇게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거나 투자자들이 경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며칠 동안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 톰 헤릭, 캐리 스트리트 파트너스 수석 시장 전략가

"출발점은 매우 제약적인 지점이다. 50bp 이동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반적으로 50bp 인하는 2007년의 경기 침체와 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발점이 너무 제약적인 상황이 라 더 낮아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시작을 크게 한 것이다.“

◆ 브라이언 제이콥슨, 아넥스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연준은 강타로 시작했다. 50bp를 인하하고 올해 50bp의 추가 인하를 예상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줬다. 파월 의장은 1950년대 이후 금리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은 2022년 6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달라는 의견이 있었을 때였다. 이번에 반대 의견은 25bp 인하였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앞당김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에릭 오렌스타인, 피치 레이팅스 수석 이사(이메일)

"연준의 50bp 금리 인하는 5월 이후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한 모기지 금리에 하락 모멘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채용자 붐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30년 만기 평균 금리가 6%에 근접한 것은 채용자 시장의 의미 있는 부분을 열어주는 것이다. 모기지 대출 기관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가장 힘든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 마이클 라네리, 트랜시온 시카고 미국 리서치 및 컨설팅 책임자(이메일)

"오늘의 금리 인하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월 페이먼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고금리 부채를 개인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저금리 신용 상품으로 재융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대출 기관은 신용을 연장하는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덜 위험한 대출자를 선호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기관이 다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용을 제공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국내전문가반응)-연준 과감한 '빅컷'에도 반복할 가능성 낮아

서울, 9월19일 (로이터)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례적으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완화 사이클을 시작했지만, 향후 인하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75%~5.00%로 50bp 인하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빅 스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하에 이뤄진 결정으로 해석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완만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지속가능하게 2%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노동 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미국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급격한 둔화 위험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임을 강조했다. 이는 점에서 예상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선제적 대응에 나선 만큼 향후 금리 인하폭은 25bp로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 초기에 속도감 있게 움직여서 고용시장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빅컷을 단행했다고 판단.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이고, 점도표 상으로도 대부분의 위원들의 의견이 올해 추가 25bp~50bp 인하에 쏠려 있기 때문에 50bp가 새로운 금리 인하의 속도가 되기는 어려울 것. 남은 11월, 12월에 각각 25bp씩 점진적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공동락·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인하의 첫 단추가 큰 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하 사이클의 성격이 물가의 안정에 따른 고금리의 정상화 과정임을 꾸준히 강조했고, 굳이 지금과 같은 큰 폭의 인하가 꾸준히 반복될 가능성 역시 일축함에 따라 빅컷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에 미치는 우호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이후 금융시장 전반에서 대통령 선거 등에 더욱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에서 시중금리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재정정책, 미국 정부 부채 등의 이슈에 더욱 민감한 동향 형성할 가능성."

▲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현재 미국 경제가 리세션 상황이 아니고, 노동시장 하방 위험을 크게 고려하여 9월에 빅컷을 단행한 만큼 앞으로는 점진주의로의 복귀가 유력. 연준이 다시 점진주의로 선회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기대는 되돌려질 가능성. 다만, 연준과 시장의 관심이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향후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예상을 하회하게 될 경우 빅컷 기대가 잔존할 수 있기에 시중금리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 우혜영, LS증권 연구원

"연방기금금리 전망에서는 이번 빅 스텝을 제외하면 남은 회의에서 추가 50bp 인하가 시사. 빅 스텝 인하라면 한 차례, 베이비 스텝 인하라면 두 차례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시나리오. 고용 데이터를 더 일찍 받았다면 7월에 인하했을 수도 있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번 50bp에 7월 뭇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 실업률 급등이 부재하다면 후 베이비 스텝으로 연속 인하를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

▲ 류진이, SK증권 이코노미스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뒤쳐져있지 않다'라는 점을 언급한 것에서 나타나듯 이번 정책 결정은 2022년과 같은 정책 실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낙장대응에 대한 연준의 우려가 반영된 선택이었다고 평가.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미리 빅스텝을 밟아둔 가운데 하반기 연준 전망대로 실업률이 4.4~4.5% 수준을 향해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4분기 동결 혹은 추가 빅스텝 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30개월 만에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꾼 연준의 행동은 과감. 반면 연준의 말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시장을 달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농후. 이미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금융시장이 더 달릴 만한 재료로는 부족했던 것. 경기침체 우려를 금융시장이 반영할 단계는 아님. 그러나 과거 미국 연준의 첫 금리인하 이후 금융시장 흐름을 보면 주식보다 채권 가격이 우세. 금리인하 국면은 이제 시작으로, 주식시장이 금리인하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려운 법."

▲ 김준영, DS투자증권 연구원

"이번 사이클의 실업률은 기존의 침체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 신규실업수당청구건과 같이 고빈도 데이터가 양호하다는 점, 해고가 늘어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온기가 다가갈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는 CPI와 PCE 데이터 모두에서 양호한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대로 임대료가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물가 경로 또한 재차 반등하기는 힘들 것."

▲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

"이번 인하 사이클 시장은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주요 변수가 아니며 연준의 주요 전망치는 하방 리스크에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 시사. 경기 전망의 리스크 비대칭성과 빅스텝 인하 전략을 감안하면 최종금리가 내려가기 보다 향후 단행할 인하를 앞당기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번에 업데이트된 정보 반영해 올해말 4.5%, 내년 추가 125bp 금리 인하로 내년말 3.25% 기준금리 전망 수정. 금리 인하 사이클 개시 전후로는 단기채 및 커브 스티프닝이 최선호 포지션."

(문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